




# 목 차

	<b>모빌리티 동향</b> .....	11
<b>해외</b>	- SDV·신규 공장에 AI 적용· 현대차그룹·엔비디아, 모빌리티 혁신 .....	11
	- 구글과 미래차 손잡은 현대차그룹·북미 모델에 구글맵 탑재 .....	12
<b>정책</b>	-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.....	13
	- 2025년 수소차 보조금 지침 조기 확정 .....	14
	-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-新모빌리티 안전 강화 및 혁신 .....	15
	-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, 규제 장벽 허문다 .....	16
<b>기업</b>	- 테슬라 안착한 韓에 이달 BYD 상륙·‘전기차 빅2’ 격전장 됐다 .....	17
	- ‘농슬라’ 대동, CES 2025 참가· 북미 반등 실마리 될까 .....	18
<b>PM UAM</b>	- ‘플라이카’ 품은 사이버트럭?·중국산 ‘트랜스포머’에 쏠린 눈 .....	19
	- 강남-여의도에 자전거-전동 킥보드 전용도로 .....	20





## SDV·신규 공장에 AI 적용... 현대차그룹·엔비디아, 모빌리티 혁신

- 현대차그룹은 미국 네바다주(州)에 있는 폰텐블로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힘
- 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SDV와 로봇틱스 등 모빌리티에 더해 신규 공장 구축 등 제조 분야에서 AI를 적용해 지능화된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계획

<현대차그룹·엔비디아 전략적 협력 예상 분야>



**AI · 로봇틱스**  
엔비디아 로봇틱스 플랫폼 '아이작'  
기반 AI 로봇 개발



**자율주행차량**  
소프트웨어 중심 차량(SDV) 적용 기술



**디지털트윈**  
가상기술 활용한 제조 공정 혁신

-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가상의 완성차 공장을 구현하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
- 현대차그룹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첨단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AI와 로봇 기술 등 혁신적인 자동화 방식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음
-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옴니버스\*는 현대차그룹의 제조 혁신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가상 환경에서 신규 공장 구축·운영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 효율성과 품질 향상 및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
- \* 실제 공장과 똑같이 생긴 가상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한군데에 모은 엔비디아 고유의 플랫폼
-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활용해 AI 모델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
- 또한,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로봇틱스 플랫폼 아이작(Isaac)을 로봇 학습에 필요한 가상 환경 구축 및 로봇 개발에 활용

출처 : 서울경제(2025.01.10.) SDV·신규 공장에 AI 적용... 현대차그룹·엔비디아, 모빌리티 혁신 '맞손'



## 구글과 미래차 손잡은 현대차그룹...북미 모델에 구글맵 탑재

- 현대차그룹은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자동차 운영체제(AAOS)\*를 채택한다고 밝힘
  - 이번 협력을 통해 현대차그룹이 생산하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'구글 맵스'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됨
  - \* AAOS(Android Automotive Operating System): Android 운영체제의 일종으로 차량 내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자동차 관련 기능 및 기술을 포함한 플랫폼
  -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“북미 기아 차량부터 시작해 현대차와 제네시스 차량으로 확대 적용되고,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”고 말함
  - 다만 한국은 군사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구글 맵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분간 구글 맵스 적용 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짐
- 현대차그룹과 구글과의 파트너십 체결은 지난 9월에도 이뤄진 바가 있으며, 당시에는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 자회사인 '웨이모'와 협력 관계를 맺고 웨이모의 6세대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'웨이모 드라이버'를 현대차 전기차인 아이오닉5에 적용하기로 함
  - 이는 현대차가 공을 들이고 있는 '자율주행 파운드리' 사업의 첫 성과로, 현대차는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을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
  - 이렇게 생산된 아이오닉5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'웨이모 원(Waymo One)'에 투입해 운영될 예정
- 현대차그룹은 구글뿐 아니라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 손잡으며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(SDV)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계획
  - 지난해에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인 '알렉사'를 북미에 출시하는 차량에 탑재한다는 계획을 발표



### <빅테크와 협력 강화하는 현대차그룹>

구글	구글 자회사 '웨이모'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한 차량 공급 구글 맵 정보를 현대차그룹이 생산하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활용
아마존	북미 출시 차량에 아마존이 개발한 AI 비서 '알렉사' 탑재
바이두	커넥티드카 등 포괄적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

출처 : 매일경제(2024.12.12.) 구글과 미래차 손잡은 현대차그룹...북미 모델에 구글맵 탑재



##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

- 환경부는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'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(이하 보조금 개편안)'을 마련했다고 밝힘
-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함
  -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이 상향되고 보조금 감소폭도 확대하며,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하여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 관련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를 우대

<2024년 보조금과 2025년 보조금(안) 비교>

구분	'24년	'25년(개편안)
승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성능) (중·대형) 최대 400만원, (소형) 최대 300만원, (초소형) 250만원 정액</li> <li>* 주행거리 400km 미만 대폭 축소(중·대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중·대형) 최대 300만원, (소형) 최대 250만원, (초소형) 200만원 정액</li> <li>* 주행거리 440km 미만 대폭 축소(중·대형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혁신기술) V2L(20만원), 고속충전*(30만원)</li> <li>* 100~150kW 22만원, 150~200kW 26만원, 200kW ↑ 3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V2L(20만원), 고속충전*(30만원)</li> <li>* 100~150kW 15만원, 150~200kW 20만원, 200~250kW 25만원, 250kW ↑ 30만원</li> </ul>
승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성능) (대형) 최대 6,000만원, (중형) 최대 4,000만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대형) 최대 6,000만원, (중형) 최대 4,000만원</li> <li>■ (어린이대형) 최대 10,500만원, (어린이중형) 최대 9,000만원</li> <li>* 주행거리 500km부터 차등, 400km 미만 차감폭 상향(대형)</li> </ul>

- 또한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·수입사의 책임을 강화
  -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,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을 지원
  - 자동차 제조사가 '제조물 책임보험'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
- 끝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, 다자녀 가구,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
  -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,500만 원에서 5,3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보조금 추가지원이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
  - 차상위 이하 계층이 아닌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20% 추가 지원\*되도록 하여 지원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,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% 추가 지원
- 환경부는 위 내용을 담은 '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'을 환경부 누리집(me.go.kr),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(ev.or.kr)에 게재

출처 : 환경부 보도자료(2025.01.01.)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... 성능·안전성 제고 및 구매부담 완화







## 2025년 수소차 보조금 지침 조기 확정

-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, 수소버스의 성능·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‘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(이하 보조금지침)’을 1월 2일 조기 확정하고 2025년도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
- 첫째, 2025년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 7,218억원을 지침에 반영하여 버스 2,000대, 승용차 1만1,000대, 그리고 화물차와 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
  - 또한, 수소버스의 안전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
- 둘째,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하여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
  -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 출력,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되며,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\*이 차감
  - \* (수소연료전지 출력) 저상버스 110kW, 고상버스 160kW 미만인 경우 1kW당 구매보조금 60만원 차감 (1회 충전 주행거리) 저상버스 750km, 고상버스 960km 미만인 경우 1km당 6만원 차감.
- 셋째,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
  -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두어야 하고 동일 권역 내 100대 이상 보급 시 2곳 이상,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 시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·운영해야 함
-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소차의 충전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할 계획
  - 지난해에는 86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했으며 특히 62기의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필요한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
  -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% 증액된 1,963억 원을 투입해 64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나가는 한편, 기존 압축천연가스(CNG)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거나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
- 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수소차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보조금 지침을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(ev.or.kr)에 게재





##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-新모빌리티 안전 강화 및 혁신

- 국토교통부는 「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,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」를 주제로 ▲안전한 대한민국 ▲국토교통산업 혁신을 포함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
- (안전한 대한민국) 국토교통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 본격화
  -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BMS\*가 배터리를 진단하여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시행('25.4)하고,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('25.2),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('25.2)
  - \* BMS(Battery Management System) :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
  - 수소전기동차 실증(200억원, '25~'27),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(289억원, '24~'28) 등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하고 '27년 SAF 혼합 의무화에 대비하여 SAF\* 사용 목표를 마련
  - \* SAF(Sustainable Aviation Fuel) :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여 항공기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원료
- (국토교통 산업 혁신) 국민의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과 드론 등 新산업 육성
  - 그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탑승자 없이 50km/h 이내의 속도로 달리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('25.下)
  -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 본격화
  - 농어촌이나 새벽·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(4곳 → 7곳)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제고
  -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·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'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'을 마련('25.9)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도 대폭 확대(47곳 → 70곳)
  - 도심항공교통(UAM)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·관광·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,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('25.下)



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5.01.10.)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,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.



##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, 규제 장벽 허문다

-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('24.12월~'25.1월)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다음과 같은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
- (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) 대전시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\* 시범운영 사업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
  - \* 무궤도 노선(도로)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

<3칸 굴절버스 개념도>



- (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)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함
  -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(진심)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(제이홀딩스)에 대하여,
  - 자동차 등록·대여약관 신고와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
- (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개발 방안)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 특례를 부여
  -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현대차와 같은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
- (수요응답형 해상택시)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상 특례를 부여
  -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하여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(가티)에 대하여 특례 부여



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5.01.13.)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, 규제 장벽 허문다



## 테슬라 안착한 韓에 이달 BYD 상륙...‘전기차 빅2’ 격전장 됐다

-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(BYD)가 지난해 순수 전기차 부문에서 미국 테슬라와의 판매량 격차를 3만 대 이하로 좁힌 것으로 드러남
  - 테슬라의 202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(약 181만 대) 대비 1.1% 감소한 178만9,226대를 기록하며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줄어듦
  - BYD는 2024년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176만4,992대로 전년(약 160만 대) 대비 12.0% 증가하며 테슬라와의 격차를 2만4,234대로 줄임
  - 특히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차, 수소차를 포함한 BYD 전체 판매 대수는 전년(약 300만 대) 대비 41.3% 증가한 427만2,145대로 이미 테슬라를 넘어섬
- 테슬라는 2017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국내 판매량을 꾸준히 늘려 오며 지난해 전년(1만6,461대) 대비 80.8% 증가한 2만9,754대를 판매하며 수입 승용차 브랜드 3위에 등극
- 올해 BYD가 한국에 승용차 모델을 선보이며 글로벌 전기차 선두를 다투는 테슬라와 BYD는 국내에서 판매 대결을 펼치게 됨
  - BYD가 선보일 모델로는 중형 세단 ‘쉴’, 소형 SUV ‘아토3’, 소형 해치백 ‘돌핀’ 등 순수 전기차 3개 모델이 유력하며 올해 한국에서 1만 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
  - 중국에서 쉘은 3,000만 원 중반, 아토3는 2,000만~3,000만 원, 돌핀은 1,00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

<BYD가 한국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 전기 SUV ‘아토3’>



- 프리미엄 이미지의 테슬라와 낮은 가격이 강점인 BYD의 고객층은 상이할 수 있으나, 과거 BYD의 상용차 브랜드가 이미 수입 상용차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시장을 잠식한 것을 보았을 때 양사의 국내 판매량 추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

출처 : 뉴스1(2025.01.05.) 테슬라 안착한 韓에 이달 BYD 상륙...‘전기차 빅2’ 격전장 됐다







## ‘농슬라’ 대동, CES 2025 참가... 북미 반등 실마리 될까

- 국내 농기계 업계에서 ‘농슬라’로 불리는 대동이 업계 최초로 CES 2025에 참가하여 부스 콘셉트를 ‘AI to the field’로 정하고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AI 기반 다기능 농업로봇과 정밀농업, AI 식물 재배기 등 AI 농업 기술을 선보임
  - 다기능 농업로봇은 농가 실증을 완료하고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인 신제품으로 트랙터와 작업자 역할을 추종하는 운반 로봇이며, 비전 센서 기반으로 농경지·장애물·작업기를 인식해 자율작업을 수행
  - 딸기 재배를 예로 들면 모종을 옮겨 심는 정식 작업부터 적화, 가지 제거까지 딸기 생육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을 하나의 AI 모델에 기반하여 하나의 로봇이 수행하는 엔드투엔드(End-to-End) 기술
  - AI 식물 재배기는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제품으로 AI와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상태를 분석하고 수확 시기를 예측하는 등 스마트 파밍 기술을 통해 작물별 최적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
- 대동의 첫 CES 참가인 만큼 행사 참여를 통한 성과 외에도 이를 계기로 코로나 호황 이후 내리막 추세에 있는 북미 시장 매출 반등을 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
  - 북미는 대동의 최대 수출처로 대동은 코로나 기간 북미의 하비 파머\* 수요에 힘입어 북미 매출은 물론 전체 매출 신장으로 이어져 1조 원대 고지에 올랐으나, 2021년을 고점으로 미국에서 하비 파머의 주 구매 대상인 중소형 트랙터 수요가 줄면서\*\* 실적 악화로 이어짐
  - \* 취미로 농장을 가꾸는 사람
  - \*\* 미국 내 소형 트랙터 시장은 2021년(21만5,286대) 대비 작년 3분기 절반 수준(10만6,120대)으로 대폭 감소

<대동의 북미 지역 매출 추이>



- 대동은 북미 매출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내 딜러망 확대, 할부금융 강화, 중대형 트랙터 라인업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실행 중이며, 동시에 유럽 시장에서도 판매 채널을 확대하며 지역 다변화를 통해 매출 하락 압박에 대응하고 있음

출처 : 이투데이(2025.01.01.) ‘농슬라’ 대동, CES 2025 참가... 북미 반등 실마리 될까



PM/UAM

## ‘플라잉카’ 품은 사이버트럭?...중국산 ‘트랜스포머’에 쏠린 눈

- 샤오핑 에어로트는 자동차에 플라잉카를 싣고 다니는 ‘모듈형 플라잉카’로 명명된 1대의 플라잉카와 1대의 육상 항공모함(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)를 전시
- 해당 플라잉카는 운송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중 모듈은 UAM처럼 이착륙장이 필요 없어 어느 곳에서는 비행을 시작할 수 있음
  - 지상 모듈은 4인승 6륜 모델로 전장 5.5m, 폭과 높이는 각각 2m로 일반 면허로 운행 가능하고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중국 CLTC 기준 1,000km 주행 가능하며 에어 모듈을 6회 충전 가능
  - 공중 모듈은 eVTOL(전기로 구동되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) 구조로 270도 시야각의 파노라마 조종석을 갖추었고 총 2인이 탑승할 수 있으며, 조종도 쉬워 5분이면 배울 수 있고 3시간이면 숙달
  - 회사 측에 의하면 저고도 선행 가속, 스피이럴 클라이밍, 상시 하강, 정밀 착륙 등의 3가지 비행에 성공하였고 특히 독수리가 하강하는 것처럼 80미터 높이에서 하강해 완벽하게 착륙했다고 강조

<모듈형 플라잉카의 지상 모듈과 공중 모듈, 지상 모듈에 공중 모듈이 실려있는 모습>



- 회사는 “스마트폰을 한 번만 터치하면 지상 모듈에서 공중 모듈을 분리한다”며 “수동 조작 없이 5분 이내에 플라잉카를 날릴 수 있다”고 설명
  - 해당 플라잉카 모델은 현재 테스트 중으로 작년 말 중국에서 사전 계약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며 미국 등 다른 지역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
  -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 3만 달러, 한화 약 4억3,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

출처 : 디지털타임스(2025.01.10.) ‘플라잉카’ 품은 사이버트럭?...중국산 ‘트랜스포머’에 쏠린 눈

모  
빌  
리  
티





PM/UAM

## 강남-여의도에 자전거-전동 킥보드 전용도로

- 서울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을 위한 ‘의사당대로·테헤란로 도로공간 재편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’을 완료하며 강남구 테헤란로와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을 위한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밝힘
  - 개설 구간은 강남역~삼성역 3.3km, 여의도공원 동측~샛강역 1km 구간으로, 기존에 3m 이상 이던 차로 폭을 평균 3m로 줄이고 확보한 공간을 활용할 계획
  - 테헤란로는 평균 폭 1.3~1.5m, 의사당대로는 평균 폭 1.5~2.0m로 차도와는 단차를 두고 조성
  - 또한, 전용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녹지를 마련하여 보행자 안전도 확보
-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(PM)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
  -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(TAAS)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테헤란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만 11건, PM 관련 사고는 28건이었음
  - 서울시 측은 “서울시가 추진하는 ‘녹색 교통 진흥지역’의 일환으로 이번 전용도로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”며 “이르면 내년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”이라고 설명

<서울시 도로공간 재편 구간>



- 서울시는 테헤란로와 의사당대로 재편 이후로도 중구 동호로 등 12개 도로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·자전거·PM 등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재편할 계획

출처 : 동아일보(2025.01.14.) 강남-여의도에 자전거-전동 킥보드 전용도로

모빌리티

